

## 제1회 대학생협 아카데미 진행



'생협운동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는 한살림연합 조완형 전무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학생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3시간씩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생활협동조합의 기원과 역사, 대학공동체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대학생협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생명·평화·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하는 풀뿌리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협 아카데미는 대학생협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서울지역의 대학생협 활동가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 『시민교육』 4호 발간



사업회 교육사업국은 정보지 『시민교육』 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교육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집'에서는 '학교 안 시민교육'을 주제로 요즘 학교 사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중 네 가지 사례, 즉 생태교육, 식생활교육,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소개했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생애 단계별로 정리해 보기로 한 '기획'에서는 그 두 번째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봉사학습 중심으로 담았다.

## 사업회 단합대회 개최



지난달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직원 단합대회가 충남 태안에서 있었다. 이번 단합대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임원진과 직원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통해 사업회 내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사업회 임직원들은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하고, 만리포 백사장에서 체육 행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 5·18민중항쟁 제31주년 기념식

눈부셨다. 경건함을 새기기엔 너무도 찬란한 햇살이다. 5월 햇살을 미음껏 즐기기에 광주는 적합지 않다. 적어도 5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마음 한 구석 햇살에 드리워진 그늘을 안고 있다.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며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고 했던 김남주의 시구처럼.

지난 5월 17일, 5·18민중항쟁 제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오후 4시, 차량통제를 한 금남로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용 천막들이 군데군데 쳐 있고 그 안엔 주먹밥을 만드는 꼬마들도 있고 헌혈을 위한 침구가 놓인 곳도 있다. 거대한 가운데에는 ‘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노동실업광주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해맑은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세워놓은 전시물들이 늘어서 있다. 지난 13일 벌세하신 고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 고문을 추모하는 플래



카드도 눈에 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과 전시물에선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31년 전 그랬듯, 지금 금남로 거리도 오늘 우리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거리로 바뀌어 있었다.

금남로 거리 끝에 구 전남도청이 보인다. 책에서 봤던 1980년 5월 ‘민주화대회’에 몰려든 수십만 군중으로 가득 찬 광장 사진을 떠올려본다. 사진을 볼 때 느껴졌던 장엄한 광장의 모습은 없고 단출한 화단만이 웅덩이처럼 남아 있다. 그때 그 햇빛과 함성을 찾을 길이 없다. 마치 장난감 모형처럼 초라해 보이는 구 전남도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 중이라고 한다.

햇살이 사그라지면서 본격적인 5·18 전야제가 시작했다. 광주역, 남광주역, 광주공원에서 출발한 500명의 풍물패가 금남로로 모여들었다. 31년 전의 시민군을 상징하는 퍼레이드라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풍물패가 든 깃발엔 “대학생의 꿈. 좋은 일자리”, “잊지는 말자. 가슴 뛰

는 그때” 등의 글들이 적혀 있다. 정성껏 만든 바람개비를 나눠주며 “내일은 5·18이에요”라고 말하는 한 여학생의 모습에선 31년 전 거리를 돌며 시민들에게도 청으로 모일 것을 호소했던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오버랩되기도 했다.

전야제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갈라쇼, ‘오월 노랫꾼들이 부르는 투사의 노래’로 이어졌다. 때론 일어서 주먹을 쥐고 손을 뻗으며 따라 부르기도 하고 때론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하며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다. 그곳엔 그때처럼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 손자를 안고 온 할머니,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들까지. 31년 전 그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데서 위안을 느낀다. 박제된 5·18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5·18임을.

이튿날인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묘지로 가는 길엔 아팝나무하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10년 전쯤 대학생 때 처음으로 망월동에 왔을 때, 길



가에 늘어서 있던 수많은 만장들의 펄럭임에 마음 뭉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망월동으로 향하는 그 길은 31년 전 기억들을 다 품고 있는 듯 꽃잎도 만장도 숨죽여 사람들을 맞이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환한 오전 10시, 기념식이 시작됐다. 김황식 국무총리, 각 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과 광주시민들, 초, 중, 고등학생들로 추모식장은 꽉 찼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기념사,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념식장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전주가 시작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일어섰고 박수를 치며, 손을 들어 올리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순간, 그 공간이 살아 있는 공간임을 5·18 영령들과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같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전율이 일었다.

전야제를 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5·18을 이해하고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감수성을 지켜가고 있음을 느꼈다.

5·18민중항쟁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다고 한다. 한국 현대사 기록물 중에는 처음으로 등재되는 기록이다. 이젠 이 기록물을 통해 세계에도 5·18의 울림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양지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yangji@kdemo.or.kr  
사진 전서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sentiphet@kdemo.or.kr